



삼성물산·HJ중공업, ‘해모로바이홈닉’ 구축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HJ중공업 건설부문과 협력해 홈플랫폼 ‘홈닉(Homeniq)’을 ‘해모로바이(by)홈닉’으로 구축해 스마트 주거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서울 HJ중공업 본사에서 주거서비스 앱인 ‘해모로바이홈닉’을 HJ중공업에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과 HJ중공업 황의하 건축사업본부장(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물산



롯데 유통군, 폭염 취약계층에 ‘시원한 나눔’

롯데 유통 계열사들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과 보양식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선풍기를 비롯한 폭염 예방용품과 필수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약 6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복을 맞아 약 800인분의 보양식도 지원한다. /롯데 유통 계열사



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 위한 삼계탕 봉사

푸본현대생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하는 ‘여름맛이 삼계탕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 자원봉사단원들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의 지도 아래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삼계탕과 말반찬 100인분을 손수 조리했다. /푸본현대생명



삼표그룹,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진로 지원

삼표그룹이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 연계 진로 멘토링 ‘청춘잡담(Job Talk)’을 진행하며 청년들 진로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15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청춘잡담 잡 토크’는 현직 멘토와 청년 멘티가 만나 직무 경험과 진로 고민을 나누는 관계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삼표그룹

인사 ◆브릿지경제 △대표이사 권경훈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 이수호
◆핀포인트뉴스 △금융부 팀장 최경식
◆오마이뉴스 △뉴스본부 본부장(편집국장) 이승훈

부음 ▲구삼생씨 별세, 박상남씨 남편상, 구미성(강서힘찬병원 간호부장), 구은주, 구태형씨(라운후 한방병원 진료협력부장) 부친상, 손태형, 김규성씨 (파이낸셜뉴스 정치부장) 장인상=14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6일 오전 11시. 055-249-1700

윤석금 회장 “긍정의 말과 태도가 행복·성공 불러”

(웅진그룹)

46년 경영서 얻은 성공 원칙
다섯 번째 저서에 경험 녹여
돈 부르는 말·태도·사고법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46년 경영 인생에서 얻은 부와 성공의 원칙을 담은 저서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겁니다’를 출간했다. 이는 윤석금 회장의 다섯번째 책이다.

15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 사고방식을 풀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낸다. 스물일곱 살에 백과사전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출판, 교육,

화장품, 생활가전 렌탈 사업을 일구며 윤 회장이 몸소 겪고 증명해 낸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긍정의 언어와 인간관계 등을 다룬 ‘나를 바꾸는 법’ ▲잘파는 사람의 비밀과 생활가전 렌탈 사업의 탄생 과정을 담은 ‘일하는 법’ ▲웅진그룹의 성장 과정과 인공지능 시대 리더십을 담은 ‘미래를 만드는 법’ 등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경제적 성공에 관심이 높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큰 젊은 세대를 위해 성공의 본질을 쉽고 담백하게 풀어냈다. 윤 회장은 책에서 “긍정적인 말을 자

주한다면 부자가 될 징조”라며 ‘내가 바뀌어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 행복과 성공이 찾아온다’고 전한다. 또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내 삶이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윤 회장은 ‘말의 힘’(2024), ‘나를 돌보는 힘’(2022), ‘사람의 힘’(2018), ‘긍정이 결실을 만든다’(2009)를 각각

/김승호 기자

bada@metrosoul.co.kr



metro

LG전자, ‘라이프스굿’ 실천문화 확산

전국 10개 사업장서 ‘선당포’ 운영
임직원 선행 다짐·브랜드 체험 진행

“현재 고객뿐 아니라 미래 고객에게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며 라이프스굿(Life'sGood)을 실천하겠습니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류재철 CEO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서관에서 열린 브랜드 이벤트 ‘라이프스굿 데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직원들이 업무와 일상 속에서 브랜드 핵심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오는 24일까지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비롯해 미국 사이언스파크, 창원 스마트파크, 평택 디지털파크 등 전국 10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라이프스굿 선당포’를 운영한다. 류 CEO 등 경영진이 일차별로 참석해 참여를 독려한다.



류재철 LG전자 CEO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라이프스굿 데이’에서 선행 다짐을 적고 있다. /LG전자

선당포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처럼, 임직원들의 선행 다짐을 받고 다채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콘셉트다. 업무와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선행(先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행(善行)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이 같은 참여가 모여 LG전자의 ‘라이프스굿’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GS 안전관리 AI ‘AIR’, 레드닷 2관왕

사용자 경험·디지털 경쟁력 인정

GS가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AIR(에어)’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AI로 혁신한 사용자 경험과 디지털 솔루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GS는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AIR가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디지털 솔루션’ 2개 카테고리의 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은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창의성, 디자인 품질과 혁신성,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AIR는 GS가 자체 개발한 AI 위험성평가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작업명과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작업 과정을 분석해 잠재 위험요인·위험등급·예방 안전대책까지 자동으로 생성한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 쇳물 지키는 ‘노재 명장’ 첫 탄생

광양제철소 이상휘 파트장 선정

포스코가 노재 분야에서 처음으로 명장을 배출했다. 노재는 용광로와 전로 등 쇳물을 생산·가공하는 고온 설비의 내화물을 유지·보수해 설비를 보호하고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다. 포스코는 15일 사운영회의에서

‘2026년 포스코 명장’ 임명식을 열고 광양제철소 노재그룹 이상휘 파트장을 올해의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장은 기술 숙련도뿐 아니라 회사 기여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1직급 특별승진과 축하금,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SK이노, 청년 AI창업 키워 사회문제 푼다

에너지·환경분야 등 10개 팀 선발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환경·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청년 창업팀 10곳을 선발했다. 향후 개념검증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의 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최종 선발팀을 대상으로 킥오프와 부트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반 에너지·사회문제 해결 기술을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후원하고 큐네스티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팀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감축,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개선, 희귀암 초기 진단, 실시간 디지털 수어 생성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날 부트캠프에서는 향후 4개월간 진행할 개념검증 계획과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참가팀들은 AI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 특강을 듣고 솔루션을 발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원관희 기자 wkh@

VC협회, 대만·베트남과 ‘아시아 투자동맹’

국가 간 공동 펀드 조성 추진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대만, 베트남 VC업계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VC협회는 대만벤처캐피탈·사모펀드협회(TVCA·TPEA), 베트남사모투자협회(VPCA)와 벤처투자 생태계 공동 육성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시아 주요국 간의 벤처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국내 스타트업 및 VC의 해외 진출과 국가 간 공동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VC협회는 TVCA·TPEA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과 대만 간 상호 투자를 지원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출자·조성



김학균 VC협회장(오른쪽)이 대만벤처캐피탈·사모펀드협회 초대청 회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VC협회

하는 크로스보더 펀드(Crossborder Fund) 설립과 회수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마사회, 직원 아이디어로 성장해법 모색

사내 공모전에 62건 접수

한국마사회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경영활동과 적극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사내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제안들을 발굴했다. 마사회는 ‘KRA 지속성장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6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공모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 운영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심사 결과 ▲경영개선 분야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통합경영관리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분야에서는 ‘서울경마공원 애프터워크 라운지 프로젝트’ ▲영천경마공원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는 ‘보랏빛으로 물든 영천, 말과 와인 그리고 별의 시간’이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